

미주 한인 이민 100주년 기념축제 축하 메시지

뜻깊은 '미주 한인 이민 100주년 기념축제' 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. 아울러 200만 미주동포 여러분 모두에게 각별한 안부의 인사를 드립니다.

오늘 행사를 위해 애써 주신 워싱턴 기념사업회의 관계자 여러분, 그리고 이 자리를 빛내 주신 미국 정부와 각계의 지도자 여러분께도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

지난 한 세기 동안 우리 재미동포 사회는 그야말로 기적 같은 발전을 이룩했습니다. 비록 맨손으로 시작했지만 땀과 눈물, 그리고 용기와 불굴의 도전정신으로 오늘의 눈부신 성공을 일구어 냈습니다. 그러기에 그 열매는 더욱 값지고 아름답습니다. 충심으로 찬사와 경의를 표합니다.

저는 지난해 동포 여러분께서 보내 주신 뜨거운 격려를 늘 잊지 않고 있습니다. 지금 저와 참여정부는 '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시대' 를 열어 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. 올해 50주년을 맞는 한·미 동맹관계의 굳건한 발전을 위해서도 미국 정부와 함께 긴밀히 협력하고 있습니다.

열심히 하겠습니다.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과 후손들이 자랑스러워할 대한민국

을 만들겠습니다.

오늘의 이 축제가 재미동포 사회의 '새로운 백년대계' 를 준비하는 가운데 한·미 우호협력의 증진에 크게 기여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.

다음주 워싱턴에서 반갑게 뵙기를 바라면서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.
감사합니다.